

경제부흥, 국민행복, 문화융성, 평화통일 기반 구축

보도자료



보도일시	2016. 6. 25.(토) 배포시	배포일시	2016. 6. 25.(토)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장 주환욱 (044-215-2750)	담당자	이희곤 사무관 (044-215-2751) hglee0607@korea.kr
	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 윤인대 (044-215-2730)		이근우 사무관 (044-215-2731) ignu0903@korea.kr
	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장 최지영 (044-215-4710)		김승환 사무관 (044-215-4712) mofe@korea.kr
	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장 이민우 (044-203-4040)		박한기 사무관 (044-203-4042) hkquant@korea.kr
	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강영수 (02-2100-2850)		정종식 사무관 (02-2100-2851) tiger440@korea.kr
	한국은행 시장총괄팀장 김인구 (02-759-4777)		이정현 차장 (02-759-4510) leejh@bok.or.kr
담당자	금융감독원 금융상황총괄팀장 엄일용 (02-3145-7490)	담당자	곽원섭 수석조사역 (02-3145-7492) wskwak@fss.or.kr
	국제금융센터 금융시장실장 김동완 (02-3705-6217)		김용준 팀장 (02-3705-6212) y.j.kim@kcif.or.kr

제목: 브렉시트 관련 「관계기관 합동 점검반」 회의 개최

- 정부는 6월 25일(토) 10:00시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브렉시트 관련 「관계기관 합동 점검반*」 회의를 개최하여,
 - * 6.24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통한 24시간 대응체계 구축
 - * 참석자 : 기재부 경제정책국장, 국제금융정책국장, 산업부 무역정책국장, 금융위 금융정책국장, 한은 금융시장국장, 금감원 금융상황 분석실장, 국제금융센터 금융시장실장
- 브렉시트 이후 금융시장 동향 및 주요국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하고 기관별 상황 점검 및 대응 계획을 논의하였음

【국제금융시장 및 주요국 동향】

- (시장동향) 당초 예상과 다른 투표결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
 - (주가) 대부분의 국가에서 3%이상 큰 폭 하락하며, 6.16일 (코스의원 총격) 이후 상승분을 반납
 - * 주요국 증시(전일대비, %): (美)△3.4 (獨)△6.8 (英)△3.2 (佛)△8.0 (日)△7.9 (香港)△3.1 (中)△0.8
 - (환율) 그 동안 강세를 보였던 파운드와 유로화는 약세로 전환, 안전자산인 엔화는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
 - * 달러대비 주요국 환율(6.24일, %): (英)8.7 (유로)2.4 (日)△3.7 (中)0.6
 - (금리) 주요국 국채금리는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며 급락
 - * 주요국 금리(전일대비, bp): (미)△19 (영)△29 (독)△14 (일)△3
 - (유가 및 금) 유가는 유럽발 경기둔화 우려로 큰 폭 하락 (△5.1%), 금은 안전자산 선호로 큰 폭 상승(+4.7%)
 - * 1315.5\$/온스('14.3월 이후 최고가), 이전 최고가는 1383.1\$/온스('14.3.14일)
- (각국 대응) ECB는 추가 통화완화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, G7도 과도한 변동성 방지를 위한 협조를 재확인하였음
 - 美 연준은 필요시 스왑라인을 활용해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
 - G7은 과도한 변동성 및 무질서한 환율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협조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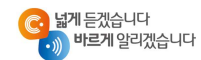
【국내금융시장 동향】

- 브렉시트 투표 당일(6.24일) 외국인 주식채권자금에 소폭 유출되었으며, 국내 장마감 이후 뉴욕 NDF환율은 하락
 - (환율) 원/달러 환율은 6.24일(금) +29.7원 상승하였으나, 장마감 이후 NDF 시장(1,173.0원)에서 △6.9원 하락
 - * 원/달러 환율: ('15말)1172.5 ('16.5말)1191.7 (6.23)1150.2 (6.24)1179.9 (6.25 NDF)1173.0
 - (CDS프리미엄) 전일대비 +6bp 상승(55→61bp)
 - * CDS 프리미엄(bp): ('15말)55 ('16.5말) 59 (6.22)59 (6.23)55 (6.24)59
 - * 주요국 CDS 프리미엄(bp) : (美)23.1 (日)47.0 (中)129.5 (佛)50.5 (伊)180.0
 - (외국인 증권자금) 주식은 △590억원 순매도하였으나, 채권은 +206억원 순매수(6.24일)

【평가 및 대응방향】

-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크고, 파장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
 - 각국 정부·중앙은행이 공조에 나서는 등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시간을 두고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,
 - 추가적인 EU이탈 가능성, 영국의 EU탈퇴 협상과정 등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하기 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상존
- 관계기관은 향후 상황 전개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기로 하였음
 - * 긴급 간부회의(6.24, 금융위), 통화금융대책반 회의(6.24, 한은), 긴급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(6.24, 금감원) 개최

- 국내외 경제·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체계를 유지하면서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
 - 브렉시트 이후 국내 금융·외환시장, 금융기관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
 - 또한, 금융부문의 변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출 등 실물부문 동향도 철저히 점검*
 - * 실물경제상황점검반(반장: 산업부 1차관)을 중심으로 수출 상황 일일 모니터링 체제 가동 및 수출애로 신속 해결 지원
- 필요한 경우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
-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·금융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임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